



2012년 인쇄 및 관련업계 전망 세계 경제 유동성 커지고 불안, 내수도 위축 전망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정치적 영향 커질 듯

2012년 인쇄문화산업은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인 경기의 향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유로권의 재정 및 금융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연말 급작스러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 리스크도 어느해 보다 큰 한해가 될 전망이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의 내년 전망은 대체로 수출 부진과 내수 감소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의 재정 및 금융 위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하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그 성격상 단기간에 해소될 상황이 아니고 다수 국가의 이익이 엇갈리고 있는데다가 유로권의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확률은 낮지만 급격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국내경제에 대한 전망은 2011년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3%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수는 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비교적 낮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유로권 재정위기,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 대외부문 불안이 가장 큰 하락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완화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한자리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수입도 유가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낮아진 한자리 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수출, 수입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넘어서면서 무역흑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 인쇄업계도 불황 여파 크게 받을 듯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국내외 인쇄업계도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유럽의 재정 및 금융사정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유럽에 전통적인 인쇄기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의 축소로 신규 수요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년에 비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도 대폭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권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부진과 중국 등 개도권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2012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4% 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 및 일본의 주요 인쇄기 제조업체들이 부도 또는 구조조정의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쇄기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012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이라는 전국규모의 선거가 있지만, 과거와 같은 인쇄물 특수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선거기획사들의 시장 교란행위, 과거에 비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선거 운동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선거인쇄물의 종류나 수량이 감소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일부 인쇄업체들은 대안으로 선거 인쇄물 기획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직접 기획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개별 회사가 단독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으로 주요 광고 매체 가운데 광고매체로서 인쇄물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도 인쇄업계에는 나쁜 소식이 되고 있다. 이는 대형 광고주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효율적인 광고매체로 인식함에 따라 인쇄물이 광고매체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커져

지난해 2분기 국내 실물경기는 유가급등 및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성장을 부진과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영향 등으로 2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1〉 국내외 경제 전망

(단위 : %)

구 분	한 국	세 계		
			선 진 국	신 흥 국
2012년	3.6	3.5	1.3	5.6
2011년	4.0	3.8	1.6	6.0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201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인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내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상반기에 2.9%였으나 3분기에는 2.0%로 크게 하락했다. (출처 : 한국은행)

전기비 서비스활동지수의 증가율도 2011년 상반기 평균 0.3%에서 3분기에는 -0.2%로 떨어졌으며 제조업 가동률지수의 증가율(전기비)도 2011년 상반기에는 평균 0.1%를 유지했으나 3분기에는 -0.5%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도 2011년 상반기에는 평균 82.3%였으나 3분기에는 81.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려스러운 상황은 주요 선행지수 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경기 하락에 따라 인쇄업의 가동률도 낮아질 전망이다.

수출, 환율 전망 어두워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수출제조기업 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 결과, 응답 기업의 40%가 넘는 기업이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반면 40%의 응답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10% 선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하면 ‘수출이 늘 것’이란 응답은 줄고,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과 ‘줄어들 것’이란 답변은 각각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내년 환율에 대해서는 1100원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내년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환율 안정’, ‘수출금융 지원 강화’, ‘해외 전시회 및 마케팅 참가 지원’, ‘신규 FTA 추진’ 등의 순이었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 보유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쇄업계는 오프셋 인쇄기 및 디지털인쇄기 공급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의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수출선 개척과 확대를 통한 해외수출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도 환율의 변동에 관해 신속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어느 해보다 정치적 변수 큰 한해 될 듯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도 대통령선거가 있는 2012년은 정치적으로 대형 이슈가 많아 결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계구도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요동치는 등 그 어떤 때에 비해서 남북한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는 비교적 후계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었으나 현재 김정은 군사위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계구도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어떻게 돌출될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하다.

인쇄업계 내부로 눈을 돌리면,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점도 인쇄업계에는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지난해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인쇄업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조달청인쇄기준요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어떻게 결실을 거둘지 관심이 되고 있다. 선거철을 맞이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화려한 미사여구는 예상되고 있지만, 법률제정 또는 제도적인 지원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라서는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융합법으로 지정된 인쇄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성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쇄물, 인쇄기자재 수출입 모두 둔화될 듯

2010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었던 인쇄물 수출이 구랍 20일까지도 3억 달러 달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도 전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쇄물 수출은 지난 2010년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수출액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1년 만에 2억 달러 대로 주저앉았는데 이어 올해도 수출 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인쇄물 수출확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출에 일조했던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일본 인쇄산업의 수급상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여 일본 특수가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소비 부문이 저조한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유럽은 크나큰 재정적, 금융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인쇄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물의 수입은 2010년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다시금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국내 출판 시장의 회복 여부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지만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인쇄기자재의 수출입은 전년도에 이어 20%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올해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의 성장률 둔화도 가시화되고 있어 올해와 같은 대폭적인 성장세 구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내 인쇄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전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반전되어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중고인쇄기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증가세는 예상되고 있으나 대폭적인 성장을 보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리스크는 설비 투자심리에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

〈표2〉 주요국 재정수지 전망

(단위 : %)

	재정수지 / GDP			
	2009	2010	2011	2012
미국	-12.8	-10.3	-9.6	-7.9
유로	-6.3	-6.0	-4.1	-3.1
일본	-10.3	-9.2	-10.3	-9.1
중국	-3.1	-2.3	-1.6	-0.8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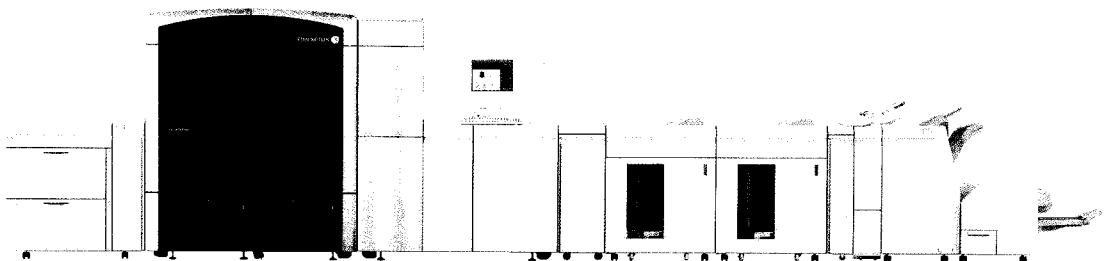
디지털인쇄 성장세 지속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디지털인쇄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 하락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향의 변화에 따라 오프셋 또는 매엽 인쇄기의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디지털인쇄기는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인쇄의 성장세를 가로막을 요소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디지털인쇄의 호조는 전체적인 디지털인쇄기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데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디지털인쇄기로 작업하는 것이 소량다품종 인쇄물 제작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업계 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러 작업 라인을 갖고 있는 중대형 인쇄사들을 중심으로 오프셋인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인쇄기를 교체 또는 증설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으며 소형 인쇄사들도 과거에 비해 디지털인쇄기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디지털인쇄의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수년째 이어진 소량 다품종의 인쇄물의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판 부문에서 POD를 이용한 출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인쇄사들도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옵션의 디지털인쇄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포토북 및 앨범시장의 확산도 디지털인쇄기의 판매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드시 하이엔드형 디지털인쇄기가 아니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형 포토북 시장의 성장은 디지털인쇄기의 성장세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인쇄업계가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년째 두드러지고 있는 저가임에도 고급형 디지털인쇄기와 비슷한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라이트장비와 미들엔드급 모델의 판매 증가가 디지털인쇄기의 활성화에 기대하는 정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새로운 경향으로는 디지털인쇄 전용 후가공장비의 개발 및 공급이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디지털인쇄가 인쇄산업의 주류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지며 디지털인쇄의 사용처를 확대시키는데 또 다른 힘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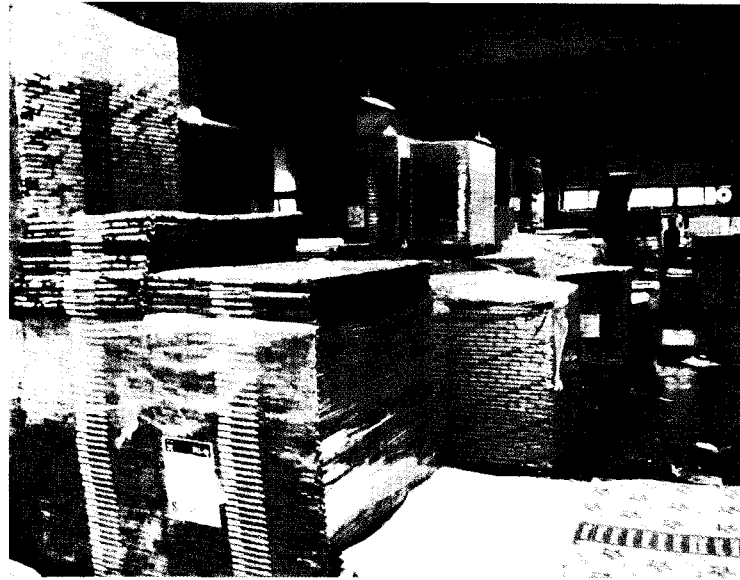
성능의 향상, 디지털 전용 후가공장비의 등장으로 디지털 인쇄기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후지제록스의 컬러 1000 프레스

제지산업, 수출과 내수 모두 '흐림' 예상

2012년 제지산업은 선진국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제지업체들은 생산설비의 재배치와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구조 개편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가 간 무역규제가 강화로 비효율적인 설비의 폐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및 거대화를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력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 인쇄용지업계는 지난해 무림피애펜이가 연간 45만톤 규모의 신규설비의 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급과잉상태가 되었고 중국도 대규모 인쇄용지 설비를 신설하면서 수출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제지업계는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는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제지사들은 고객들에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한솔제지가 10여년 만에 인쇄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충무로 일원으로 사옥을 옮겨 고객들에 밀착한 마케팅을 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한국제지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인데 이어 고객들과 접촉하는 마케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림제지는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하락도 각국의 인쇄물 발주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지업체들의 수출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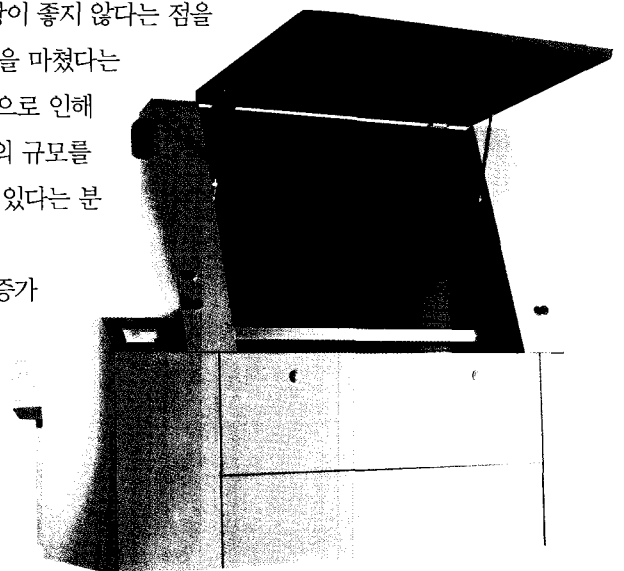


제지산업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CTP 시스템시장 경쟁 격화... 판재 평년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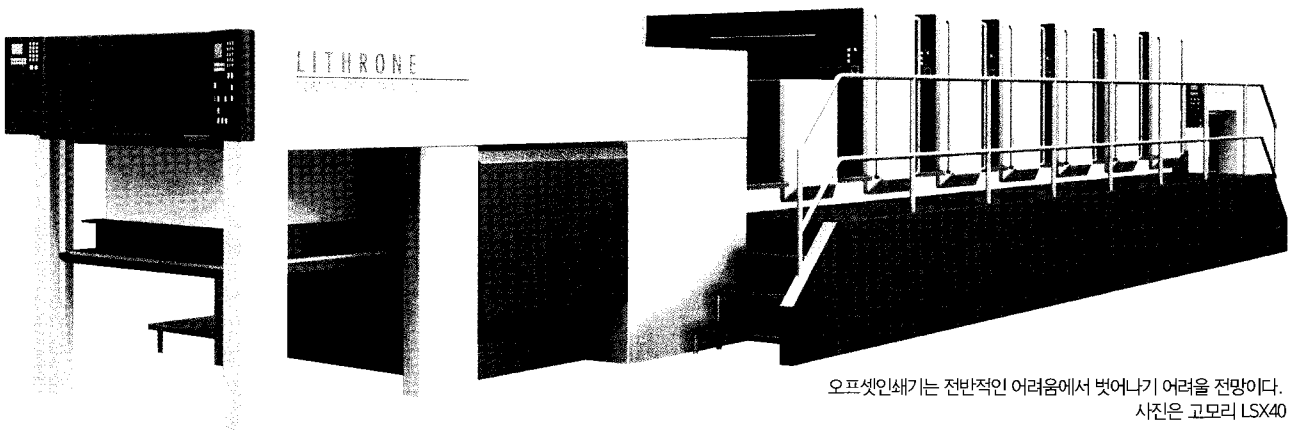
CTP 시스템업계는 지난해 최근 수년 동안에 비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맞이한 바 있다.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판재 성장세가 유지되었지만 예년에 비해 많은 업체들이 후발주자로 CTP시스템의 공급에 나섰다. 이런 현상은 당초 인기를 끌던 UV CTP시스템의 성장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선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최근 2~3년과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전체적인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장비를 도입할 업체들은 이미 상당수가 도입을 마쳤다는 추정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긍정적인 요인은 디지털인쇄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CTP출력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거 출력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아직 1,000대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의 CTP 설치 실적은 신규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따라 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누적판매대수가 1,000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TP판재 공급업체들은 CTP의 보급 확대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재 공급업체들의 대응은 다양한 가격대로 나눠져서 저가형 판재를 선보이려는가 하면 정품가격의 인하도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정인테네셔널이 공급하는 UV CTP 프리즘

CTP판재시장은 판재의 성능 향상, 유통망의 확충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CTP시스템 시장에 진입한 후발업체들과 어떤 협력 관계를 맺는지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2년 CTP시스템 및 판재시장은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가와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CTP의 성장세를 돕는 디지털인쇄의 성장이 유지될 전망이어서 무난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오프셋인쇄기는 전반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전망이다.
사진은 고모리 LSX40

오프셋인쇄기, 여전히 어려울 전망

2012년에도 오프셋 인쇄기의 급격한 수요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사들은 판매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족할 성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오프셋 인쇄를 활용한 인쇄물의 발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은데다가 디지털인쇄기로 옮겨가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외의 경제적, 정치적인 변수가 어느 해보다 커짐에 따라 설비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오프셋인쇄기의 공급사 가운데 일부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법적 보호조치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도 오프셋인쇄기 공급의 확대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프셋인쇄기 공급사들은 기존 고객들의 수익성 향상을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기존 고객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적인 판매 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비 판매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워크플로를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패키지화된 제안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효율적인 생산유지보수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관리도 오프셋인쇄기 공급사들이 택할 수 있는 대고객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급인쇄물 작업을 강화하고 인쇄물 수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쇄작업 관리와 친환경 품질관리도 오프셋인쇄기 공급사들이 주력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에 들어서도 오프셋인쇄기 공급사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어려움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 어렵다는 점에서 성장으로의 반전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쇄물의 색상 표준화 및 친환경 작업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후가공, 내수와 수출 모두 쉽지 않아

최근 수 년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후가공업계도 전체적인 경기 부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인쇄 및 후가공 처리 단가의 정체, 인건비 및 부대비용의 상승, 생산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가공업계가 새로 맞이하는 2012년에 들어서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기존의 보유기계를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자동화 및 고속화를 추구하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후가공기계의 수요증가를 좌우하는 인쇄업의 부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후가공장비를 도입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수년간 후가공업계에 도움을 주었던 환율의 움직임도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경기의 불확실성도 투자심리의 위축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인쇄시장의 성장에 따라 포토북 또는 앨범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성장은 기대되고 있으나 디지털인쇄를 위주로 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후가공장비가 없다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내 인쇄시장의 부진이 단기적인 것도 아니라 당분간은 개선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복제 제품이 판을 치고 있는 현지 상황을 감안해야 하며, 수출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업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접지분야는 2012년에도 어느 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철·제책 분야는 유럽의 최신 중철 제본기들이 수입, 소개되면서 국내의 중철 제책 품질을 높인 데 이어 그 시장을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중철기 가운데 최신의 초고속 중철기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신기술과 연계된 중철 제책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친환경적인 신기술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선철 제책의 전통적인 분야인 학습지나 잡지 제책은 2012년에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습지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스마트폰에 의한 시장 잠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동용 도서 시장의 수요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접지기 부문도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후가공 과정을 거친 인쇄물들

전자책·POD 출판, 외풍 거셀 출판업계

새해에 들어서도 출판업계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대폭적인 감소세를 면했다는 점에서 일부 위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올해도 전반적인 도서관매량의 감소, 도서 단가의 실질적인 하락 등 어려움이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주요 독서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독서량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출판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2천만대를 넘어선 스마트폰의 보편적인 사용은 아동용 도서 시장에 국한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출판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e-book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출판업계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정해질 전망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될 경우, 충격은 지금껏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업계 일부에서는 출판관련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전자출판업계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출판업계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고, 서로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실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적 인쇄·유통 과정의 간소화나 국내외 절판도서뿐만 아니라 해외 절판도서를 개별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서비스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디지털 프린팅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디지털인쇄의 장당 인쇄비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저렴해진 것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웹 투 프린트의 대두로 기존의 출판물 유통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3〉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단위 : %)

	2010	2011			
		1/4	2/4	3/4	
국내기계수주(선박 제외)	11.2	19.5	8.2	1.3	
수요자별	공공	-37.9	-10.3	82.0	5.6
	민간	21.8	22.7	3.1	1.0
설비투자조정압력	9.5	4.1	1.6	1.2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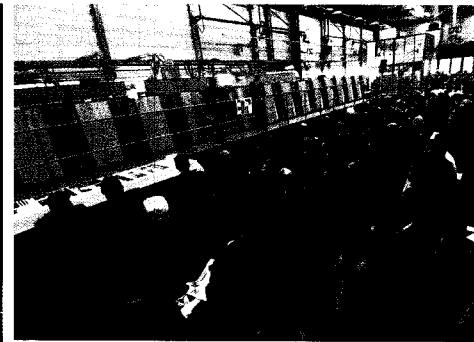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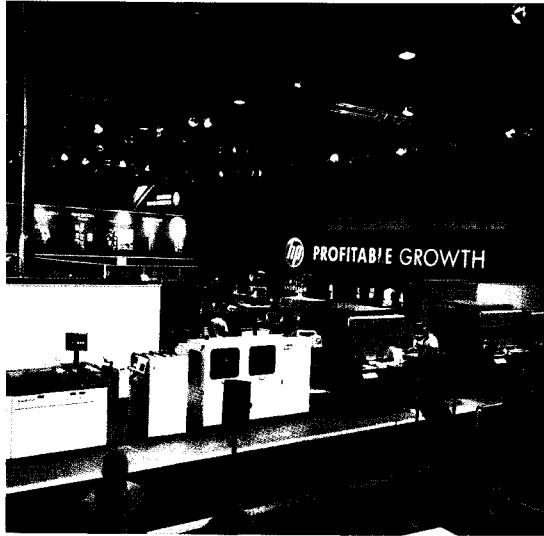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임.

인쇄물 수출 활성화 적극 모색해야

지난 2011년 인쇄물의 수출은 3억 5천만 달러에 육박했으나 지난해에는 12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3억 달러 달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수출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쇄물의 수입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돌아왔으나 전체적인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동반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인쇄물의 수출입은 감소했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인쇄산업의 수출입은 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인쇄산업은 특히 내수부문에서의 성장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인쇄산업을 둘러싼 수요도 감소하거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 부문에서의 활로 모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랫동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인쇄업체간의 과당 경쟁, 낮은 수주가격, 고유인쇄 영역의 침범 등은 단기간에 개선하기도 어렵지만,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질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인쇄업계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재, 해외 마케팅을 위한 자금의 부족, 수출전문인력의 부족 등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개별업체가 단독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으로 인쇄물 수출에 대한 실무과정을 지난 2009년부터 개설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쇄물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국제 인쇄전 및 도서전에 인쇄문화관을 꾸리고 인쇄사들의 카탈로그를 비치해 간접적이거나 홍보의 기회를 늘리고, 업체들의 부스 참여를 지원하여 인쇄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남겼다. 또한 연말에는 인쇄업계 단독으로 일본 동경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 상담과 함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드루파2012전시회는 올해 최대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해외전시회 모습
 ◀◀ 해외인쇄사의 모습

앞으로 인쇄업계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출전문가 육성과 영입을 위해 업계가 공동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교환과 수출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쇄수출회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쇄물수출진흥협의회 등과 같은 단체 및 모임의 활성화와 함께 대한인쇄문화협회내에 설치된 인쇄물수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연계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해외인쇄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쇄물의 높은 수준을 적극 홍보하고 현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1~2년 단위의 단기적인 계획을 벗어나 중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제도를 확립해야만 수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해외 수출업체들과 신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들간의 제휴와 협력을 통해서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와 국제적인 안목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공동 수주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전문단지 활용도 높여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광역단체에서 인쇄전문단지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예정이지만, 단순한 조성만 만족하지 않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지역 인쇄업계별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지역, 대전-충남지역이 일정상 앞서서 인쇄전문단지 및 인쇄출판단지의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는데 그친다면, 그동안 그토록 주창해온 인쇄산업의 첨단화, 미래지향적인 인쇄산업은 공염불에 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단인쇄문화정보센터, 연관 산업 공동물류보관시설, 인쇄문화체험관,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인쇄산업 인프라를 인쇄전문단지 내에 함께 조성하거나 인쇄전문단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성사여부는 지역 인쇄산업을 둘러싼 여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공해산업으로 치부되면서 정책에서 소외되느냐로 극명하게 결과가 갈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인쇄업계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